

假傳의 編綴性

~清江使者 玄夫傳의 源泉의 探索의 中心으로~

曹 壽 鶴

〈內 容〉

- I. 序 論
- II. 清江使者玄夫傳의 源泉探索
- III. 結 論

I. 序 論

假傳이 東洋 옛 傳記의 第四種임이 밝혀짐¹⁾에 따라 그 形式面에 있어서 는 史記의 列傳形式을 意圖의으로 模倣한 것임을 알게 되었으나 그 內容面에서는 아직 未開拓의 狀態라 하겠다.

內容面을 研究함에 있어서는 먼저 많은 어려운 難點들의 그 源泉을 穿鑿함이 緊要한 課題일 것이다.

왜냐하면 從來 ‘假傳體’란 不센시컬한 名稱下 이를 假傳體小說²⁾이니, 疑人文學³⁾이니, 說話의 發展⁴⁾이니, 或은 教述文學장르⁵⁾이니 等 實로 假傳의 概念마저도 定着되지 못한 然態에 있었으며, 特히 그 事件의 展開를 小說의 構成과 同一視하여 ‘프롯’⁶⁾ 研究가 敢行되는 等 事實上 애너키즘 現狀을 免치 못하였다.

假傳의 줄거리는 프롯이라 하리만치 必然的 構成도 아니며 또한 小說에

1) 拙稿, 假傳研究(1973. 10) 韓國語文學會刊 語文學 第29輯 pp. 59~80

2) 張德順: 金鰲新話 우리 小說의 처음 아니라(1972.) 每日新聞紙上

3) 鄭鈺東: 古代小說論 pp. 310~324 金光淳: 韓國擬人文學의 史的 系譜와 性格 語文學 16. 17號

4) 金起東: 李朝時代 小說論 pp. 131~152

5) 趙東一: 假傳體의 장르 規定(1971. 11) 池憲英先生華甲記念論叢

6) 金光淳: 韓國擬人文學의 史的系譜와 性格(上) pp. 142~143 同 p. 152. 「語文學 16號」

가깝도록 創作的인 虛構性도 是認할 수 없으며, 또한 隨主簿傳이나 原大州傳等の 寓話小説과 같이 主人公의 元觀念이 어떤 弱點이나 矛盾을 간직한 人間事도 아니다.

假傳은 어디까지나 實傳記의 目的인 個人的 善行이나 功德을 褒賞하고 後世의 教訓으로 남기려는 手法을 模한 餘技의 戲作에 依한 假傳記인 假傳인 것이다. 따라서 스토리의 內容을 構成하는 斷片的 事件들은 創作的 虛構性이 排除되고 이미 文字上에 定着된 傳說이나 故事 및 歷史的 記錄에서 適切한 內容의 斷片的 이야기를 拔萃하여 이를 天衣無縫의인 能熟한 筆法으로 巧妙하게 엮어나간 線綴的인 面에서만 그 虛構性을 強調하고 있는 것이다. 이 말은 곧 傳記가 原來 歷史임을 堪案한다면 斷片的이나 事件의 虛構性을 排除하는 理由를 肯定하게 된다.

이와 같은 假傳의 線綴的 虛構性은 實傳記에서 傳記小説로 趣移하는 中間段階를 實證하는 意味에서도 그 意義를 過小評價할 수 없는 것이지만 보다 先行되어야 할 問題가 果然假傳의 內容이 創作的 虛構性을 排除하고 傳說, 故事 等に 徹底하게 依存하고 있는지를 밝혀 놓아야 하겠기에 本稿에서는 假傳에 얽혀진 斷片的인 事件들의 源泉을 探索함으로써 이를 證明코자 한다. 그 代表的 作品으로서 '清江使者 玄夫傳'을 擇한 것이다.

本傳은 우리 文學史上 時期에 適合하고 作者 또한 麗朝後期文學을 代表할 單한 位置에 있으며 全篇에 充滿한 用事의 內容들이 個別性이 뚜렷하여 舉例의 便宜를 期할 수 있는 作品인 까닭이다.

Ⅱ. 清江使者 玄夫傳의 源泉 探索

本傳은 題目에서 부터 스토리의 終結에 이르기까지 거의 全篇에 亘하여 故事, 傳說에 依據하고 있으며, 그것도 口傳에 依한 것이 아니고 이미 諸子百家書에 定着된 內容이므로 事件의 連結性을 把握하기에 便利하도록 原文의 順序에 따라 한件 한件씩 趨步의 方法으로 探索코자 한다.

1. 清江使者……「予爲清江使河伯之所」……〈莊子 卷九 外物篇 第二十六〉「宋元王二年 江使神龜 使於河」……〈史記 列傳 龜策傳〉
2. 玄夫……「再拜謝玄夫」……〈孟郊詩〉「東坡詩云 '獨見玄夫曝日時' 等皆謂龜也」……〈庶物異名蔬〉

또한 玄夫란 異名은 四方神位中 北方神이 거북이며 그 形態는 龜蛇合一

이라 하었다⁷⁾……〈通俗篇 神鬼, 龜蛇二將〉

「大和中朱道士者 遊廬山 見澗石閒蟠蛇如堆錦, 俄變巨龜 訪之山叟 云是眞武現」이라고 하였으며 또한 北方七星인 斗·牛·女·虛·危·室·壁의 總稱도 玄夫이기 때문이다. ……〈鄉陽雜俎〉

이 玄夫의 ‘玄’을 道敎의 〈玄之又玄〉의 玄字를 따서 왔다⁸⁾는 說은 燈下不明格의 牽強附會라 하겠다.

3. 不知何許人……이는 傳記文의 形式에서 온 것인바 傳記는 歷史이므로 特히 個別的인 列傳에 있어서는 그 事實性을 舉證하기 爲해서 序頭에서는 人定記述을 必須條件으로 하고 있는 바 本傳에서도 形式을 갖추기 爲한 것이며, 實傳에서도 人定을 確定할 수 없는 境遇에는 ‘不知何許人’이란 式의 記述을 흔히 찾아 볼 수 있다.

4. 或曰其先神人也 兄弟十五人 皆體巨 絕有力焉 天帝所命扶五山海中者是已……

「巨鼈載山：渤海之東有壑焉 其中有五山 無所連着 常隨波上下往還 不得暫時 仙聖毒之 訴于上帝 上帝恐流西極 失聖神之居 使巨鼈十五舉首而之 迭爲三番六萬歲一交焉 五山始時而不動」……〈事文類聚 介戴部；列子引用〉

5. 至子孫形褻小 亦無力聞者……巨鼈戴 山外에 如斯한 巨鼈說이 없다는 뜻.

6. 唯以下筮爲業……典據로서는〈書經·大禹謨〉의 「鬼神其依 龜筮協從」禮記·表記〉의 「子曰 君君子敬則用祭器 是以不廢日月 不違龜筮」, 또는 〈史記龜筮傳〉 등을 비롯하여 現代에 이르기까지 거북과 卜筮와의 關係는 舉證을 必要치 않는 것임.

7. 「相地利害 不常居故 其鄉里世系 不得詳悉」……〈宋稗類鈔〉에 「祥符中廩州人梁士 卜地葬其親 至一山中 見居人說 旬日前有數十龜負一大龜葬於此山中. 梁以爲龜神物 其葬處或是福地 與其人登山觀之 乃見有邱臺之象 試發之 果得一死龜 梁乃遷龜他所 以其穴葬親 其後梁生子三 立前立賢皆以進士登科」에서 ‘相地利害’란 말의 出處를 斟酌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보다 이 代문은 傳記文의 形式上 主人公의 人定記述이 重要視되는 바, 本

7) 龜蛇二將：俗に玄夫の傍らに侍する一將といふが、古來の諸說を綜合すれば、眞武の化して現はれたもので從將ではないといふ。

8) 李奎報의 假傳體文學攷：鄭在洪(1959. 6. 17) 國語國文學研究論文集第八輯 p. 43

條는 主人公의 住所에 關한 記述이며 龜의 居處가 恒常一定치 않은 生態에 緣由된 記錄이라 하겠다.

8. 遠祖文甲 堯時隱居洛濱 帝聞其賢 聘以白璧 文甲負奇圖來獻 帝嘉之 因封洛水侯 曾祖自言上帝使者 不言其名 擔洪範九疇授伯禹者是也……「一曰神龜……五曰文龜」 <稱雅>

「洛出書：堯疇沈於洛 玄龜負書出於背上 走文朱子」……<尙書中候>

「箕子陳洪範曰 天乃錫禹洪範九疇」注；「天與禹此書 神龜負文而出 列于背有數皆至九洪範」……<事文類聚 介蟲部>

9. 祖白若 夏后時 鑄鼎於昆吾 與翁難乙致力有功……「白若龜也」……

<駢雅：釋蟲魚> 「墨子耕柱 第四十六 昔者夏后開 使蜚廉⁹⁾採於山川 而陶鑄之於昆吾 是使翁難乙卜於白若之龜 搽白白 畢氏沅校本 作目若 此從王氏 應麟玉海引 仍作白若」……<訓纂>

10. 父重光 生而有文在左臂曰月子重光……「太歲在辛曰 重光」……<稱雅>

「昔君文王 武王宣重光」……<書經>

「宣帝紀：天地開闢 日月重光」……<藝文類>

「眉間喜氣報新黃 隔月先鋪月子房」…<崇禎：宮詞>

「龜左晴象日 左晴象月」 <抱朴子>

「玄妙內篇云 李母懷胎八十一載 遺遙李樹下 迺割左腋而生」 <史記 老莊申韓傳>

11. 得我者匹夫爲 諸侯爲帝王 因採其文名 」「龜者天下之大寶也 先得

此龜者爲天子 且十言十當 十戰十勝王能寶之」 <史記：龜筮傳>

「名能得龜者 財物歸家必大富」 <古今注>

12. 玄夫尤沈邃 其母夢瑤光星入懷 因而有娠始生 「北斗星 謂之七政 第

七名 瑤光 主金亦謂應星」 <星經>

「帝顓頊高陽 母曰女樞 見瑤光之星 貫月如虹」 <竹書紀年上>

「又云 玄妙玉女夢流星入口而有娠 七十二年而生老子 又上元經云 李母 遺夜 見五色珠大如彈丸自天下 因吞之 即有娠」 <史記老莊申韓傳>

13. 相者曰背法盤丘 文成列宿 必神聖之相乎 「一曰北斗龜 二曰南辰龜

9) 1. 紂王斗 惡臣 2. 鳳伯 3. 鳥身鹿頭 生風之鳥

三曰五星龜 四曰八鳳龜 五曰二十八宿龜」 <藝文類聚>

「陰面陽上 陰象天下」 <抱朴子>

14. 及莊翠研曆緯 凡天地日月陰陽寒暑風 雨晦明災祥禍福之變 無不逆知

「……豫且獻使者 使者戴行出於泉陽之門 正晝無見風雨晦冥 雲蓋其上 五彩青黃雷雨並起風」 <史記列傳 龜策傳>

「元王大悅 於是擇日齋戒 乃刑白雉鬮羊 以血灌龜於壇中央 以刀割之 身全不傷 使工占之 所言盡當 元王之時 衛平相宋 宋國最強 龜之力也 故云神龜」 <史記列傳 龜策傳>

15. 又學神仙行氣導引不死之方 「龜百歲一尾 千歲則十尾」 <六帖>

「龜齡經萬歲」 <廣五行記補>

「南方老人 以龜移床足 經二千歲老人死 移床龜尚生 龜能行氣道引 至神若此」 <事文類聚 介壽部 龜後群書要語>

「龜者陰主之老三千歲 遊於卷耳之上 老者先知故君子舉事必考之」 <遞禮>

16. 性尚武常介而行 「玄武」의 武와 背甲을 稱한 것임.

17. 上聞其名 使使聘焉 玄夫傲然不顧 乃歌曰 泥塗之游 其樂無涯 巾笥之寵 寧吾所期 笑而不答 由是不能致

「莊子釣於濮水 楚王使大夫二人 往先焉曰 願以竟內累矣 莊子持竿不顧曰 吾聞楚有神龜 死已三千歲矣 王止笥而藏之廟堂之上 此龜者 寧其死爲留骨而貴乎 寧其生而曳尾於塗中乎 二大夫曰 寧生而曳尾塗中 莊子曰 往矣 吾將曳尾於塗中」 <莊子 外篇 秋水十七>

18. 其後 宋元王時 豫且強逼之 將致於王 未及謁 夢有人玄服輶車而來告曰 我清江使者也 將見於王 明日豫且果以玄夫來謁 王大悅欲爵之 夫曰臣爲豫且所強 且聞王德故來見耳 雷祿非本志 王豈欲留而不遣耶 王欲放遣 因衛乎諫乃止 即調爲水衡丞 又遷授都水使者 俄擢爲大使令 凡國之族爲注措勳作興亡事無大小 莫不咨而後行 上獻曰 子神明之後 且明吉凶 不早自圖 落豫且之謀 爲寡人所獲何也 玄夫曰明有所不見 智有所不及故爾 王笑之 其後莫知所終

「宋元君 夜半而夢 人被髮阿門曰 予自宰路之淵 予爲清江 使河伯之所漁者余且得予 元君覺 使人占之 曰此神龜也 君曰 漁者有余且乎 左右曰 有 君曰 令余且 會朝明日 余且朝 君曰 漁何得 對曰 且之網 得白龜焉

箕圓五尺 君曰 獻若之龜 龜至 君再欲殺之 再欲活之 心疑卜之 曰殺龜
以下告 乃剝龜七十二鑽而無遺筴 仲尼曰 神龜能見夢於元君而不能避余
且之網 知能七十二鑽而無遺筴 不能避剝腸之患 如是則知有所困 神有
所不及也 雖有至知 萬人謀之 魚不畏網而畏鸚鵡 去小知而大知明 去善
而自善矣」 <莊子 雜篇 第九卷 外物 第二十六

「宋元王二年 江使神龜 使於河 至於泉陽 漁者豫且 舉網得而囚之置之
籠中 夜半龜來見夢於宋元王曰 我爲江使於河 豫且得我 身在患中莫可
告語 王有德義故來告訴 元王召博士衛平而問……略……使者當因 玄服
而乘輜車……略……衛平曰 龜者天下之大寶也 先得此龜者爲天子 略
臣聞盛德不報重寄不歸 天與不受天奪之寶 王雖遣之江河必怒 略
今王有德而當此寶 恐不敢受 王若遣之 宋必有咎 後雖悔之 亦
無不及已 元王大悅 於普擇日齊戒……略……是故明所不見 聽有所不聞
略……日月之明而時蔽於浮雲……」 <史記 列傳 龜策傳>

19. 至今搢紳¹⁰之間 有慕其德 用黃金鑄像 而佩之者 「天授二年改佩魚
皆佩龜 其後三品以上 龜袋飾以金 四品以銀
20. 胄子曰元緒 爲人所烹 臨死嘆曰 行不擇日 今而見烹 雖然盡南山之歸
不能潰我 其懷慨如此 「龜名元緒：孫權時 永康有人 入山遇一大桑即
束之歸 龜使言曰 游不良時爲君所得 人甚恠之載出欲上吳王 夜泊越里纜
船於大桑樹 霄中樹呼龜曰 勞乎元緒奚事爾耶 龜曰我被拘方見烹臠 雖盡
南山之樵 不能潰我 樹曰諸葛元遜博識 必致相若令求如我之徒 龜曰子
明無多詞 禍將及汝 樹深而止 既至權命煮之 焚柴萬車 語猶如故諸葛恪
曰 然以老桑乃熟 獻者乃說龜樹共言 權登使伐樹煮龜立爛 今烹龜猶用桑
樹 野人故呼龜爲元緒」 <劉叔敬異苑>
21. 次子曰元宁 浪遊吳越間 「格人元龜」 <書經：西伯戡黎>
「南越志曰 龜甲名神龜 出南海 生池澤中 吳越謂之元緒」 <太平御覽
鱗介部 龜>
22. 自號洞玄先生 「洞玄先生：張筵見巴西侯 飲酒命樂從之 有告者曰
洞玄先生在門 言訖有一人被黑衣 頭長而身甚廣 揖之與坐曰天將曉 筵悻
悟見身臥在石罅中 一龜形甚巨乃向所見洞玄先生」 <張續宣室志>

10) 大小官員之稱

23. 次子史失其名 形極小 不能卜 惟升木捕蟬 亦爲人所烹 其族屬或有得道 至千歲不死」 '史失其名'은 傳記文에서 典據不詳인 境遇에 慣用되는 것이며 '不能烹' '形極小' 등은 典據를 찾지 못하였으나 민화에 사는 남생이 種類를 聯想하게 하며 '升木捕蟬'은 필시 根據가 있을 듯한 하나의 事實이었으나 寡證한 탓으로 典據를 얻지 못하였음.

'爲人所烹'은 20의 '胄子元緒條'에서 살펴 보았으며 '其族屬或有得道至千歲不死'는 15의 '又學神仙行氣導引不死之方'條에서 이미 察知한 바나

24. 所在有青雲覆之者 「……雲蓋其上 五彩青黃雷雨並起風……」

<史記列傳：龜策傳>

25. 世號玄衣督郵云 「龜名玄衣督郵」 <古今注>

「釋名 玄衣督郵」 <本草：水龜>

26. 史臣曰 察至微防未兆 聖人容或有差 以玄夫之智 不能杜豫且之謀 又不救二子之烹 況其餘哉 昔仲尼厄於匡 又使門人子路 未免於鱸 嗚呼可不慎乎.

이 때문은 所謂 結末 論評部다.

事實上 스토리의 終結은 이미 前條 25에서 이미 매듭지워진 것이며 이 論評部는 小說에서는 볼 수 없는 作者의 論評을 添加한 것인데 이는 假傳 特有의 形態가 아니고 實傳記인 史記 列傳의 形態를 模倣한 것이다.

史記에서는 司馬遷 自身の 職銜을 들어 '太史公曰'이라고 하여 本文과 區分함과 同時 題名을 붙였는데 假傳에서는 이 形式을 模倣하여 作者가 마치 史官임을 假裝한 말로 '史臣曰'¹¹⁾이라고 하였다.

'察至微防未兆 聖人容或有差'라하여 論評이 性質上 새로운 內容의 用事는 있을 수 없고 '지극히 미세한 것을 살피고 凶兆고 未然에 防止하는 것은 聖人도 간혹 차질이 있는 법'이라하여 主人公 玄夫의 失手에 빚대어 하나의 格言을 成立시켰으나 이러한 論評法은 史記의 本紀, 世家, 列傳에 이르기까지 매편마다 附記하여 그 事件에 對한 是非를 判斷하여 讀者의 正義感에 強力히 呼訴하고 있는 것인데, 이는 太史公 文章가운데서도 絶讚을 받는 名文章들인 것이다.

假傳에서도 이를 模倣한 것이다.

'玄夫之智 不能杜豫且之謀 又不救二子之烹 況其餘哉' 곧 玄夫와 같이 智慧로운 存在도 豫且의 罪에 걸림과 胄子 元緒와 次子 元亨가 사람에게

11) 에 題名에 對해서는 假傳마다 一定치 않다. 史臣曰 外에서 太史公曰, 太史氏曰, 外史氏曰, 論曰, 또는 作者 氏名을 代身한 境遇도 있다.

잡혀 살지 죽음을 당하게 되는 큰 失手를 犯한 것을 代表的인 事實로 要約하고 다시 ‘昔仲尼厄於匡 又使門人子路 未免於隨’라 孔子의 失手를 이에 比較하였다.

「子畏於匡 曰文王既沒 文不在茲乎 天之將喪斯文也 後死者不得與於斯也 天之未喪斯文也 匡人其如予何」 <論語：子罕 五>

이는 곧 일찍 魯人 陽虎가 匡땅에 들어가서 掠奪한 일이 있는데, 遇然하게도 孔子의 모습이 陽虎와 비슷하였고, 陽虎의 暴行에 가담했던 顏淵이라는 사람이 孔子의 弟子가 되어 孔子의 馬車를 몰고 있었다. 그래서 孔子가 마침 匡땅을 通過하게 되자. 그 地方사람들은 陽虎가 再侵하는 것으로 誤解하고 武器를 들고 孔子의 一行을 包圍하자 弟子들이 恐怖에 떨고 있을 때 ‘하늘이 斯文(儒敎)을 이 땅에서 滅亡함을 願치않는 以上 匡人이 나를 어쩔 것인가’고 怯弱하게 弟子들을 安靜시켰다는 故事와 孔門十哲의 한사람인 子路(仲由; 子路는 그의 字), 性質이 勇猛하고 부모에 호도하였으며 政治方面에 뛰어났다고 함. 衛나라에 벼슬하다가 孔里의 亂에 殺害되어 屍體는 것을 담기었다는 故事를 引用論評하여 完結을 지었다

以上과 같이 全篇을 26個의 短篇으로 分析考察한 바 그 用事의 源泉이 不分明한 것으로는 ‘3’의 不知何許人, ‘5’의 至子孫形寢小 亦無力聞者, ‘16’ 性常武常介而行 및 ‘23’ 次者史失場名 形極小 不能卜 惟升木捕蟬 亦爲人所烹 其族屬 或有得道 至千歲不死 等 4個處에 不過하다.

前示 源泉探索에서도 略述한 바 있거니와 이를 詳論하면 ‘3’은 假傳의 形式을 갖추기 爲한 人定記述上 必要不可缺한 記述이라 하겠다. 이 點은 또한 假傳의 傳記의 第四種임을 더욱 分明하게 하는 것이다.

傳記의 目的이 模範의인 實在人物에 對한 褒賞性, 敎訓性을 상고하다면 그 人定記述의 不可避性은 오늘날 勳章의 授與나 이에 對應하는 有續의 判決文에서 實例를 考證할 수 있다. 特히 後者의 境遇에서 ‘住所不明’ 또는 ‘住居不定’ 등으로 實在 없는 事項에 對해서도 省略할 수 없는 形式임과 같은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거북의 棲息處가 水域을 限하지 않고 때로는 地上에까지 미치는 것이므로 이 ‘不知何許人’이 ‘住居不定’과 相符하는 形式임을 首肯할 수 있다.

‘5’는 ‘4’의 巨嶽戴山의 反對聯想法에 依한 것인 바 東洋 옛 文章에 ‘天’을 引用할 때 거의 例外 없이 ‘地’를 引用하는 對稱的 敘述形式이라 하겠다.

‘16’의 性常武는 常介¹²⁾而行하는 거북의 外形에서 導出한 表現이며 이 더한 表現은 假傳마다 襲用하고 있는 바이다.

‘23’에서 ‘女子史失其名’은 ‘3’과 같은 傳記形式에 의한 것이며 ‘亦爲人所烹’은 胃子 元緒條의 再引用이라 하겠으며, ‘其族屬 或有得道 至千歲不死’는 ‘15’의 <六帖>, <廣五行記補>, <龜策傳>, 등의 거북에 對한 常套的인 傳說에 依한 內容들을 再衍한 것이라 하겠다.

이렇게 볼 적에 筆者가 그 用事의 源泉 및 叙述의 根據를 밝히지 못한 것은 ‘23’의 內容가운데 ‘從升木捕蟬’의 一片 五字에 不過하다.

그러나 이 또한 筆者의 淺見으로 武庫乍開과 같이 森在하는 諸子들의 傳說 奇譚들을 살피지 못한 탓임을 推斷할 때 本傳의 創作的인 虛構性은 短片的 事件에 關한 限 거의 없다는 事實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假傳마다 本傳과 같이 거의 全篇에 通하다시피 故事나 傳說에 依存된 編綴이라고는 할 수 없다.

그것은 대개 두 가지 面으로 區分지을 수 있다. 첫째는 本傳처럼 雜多한 故事의 引用이요, 다른 한 가지는 主人公이라 할 수 있는 事物 그 自體의 여러 가지 特徵에 따라 適切한 人間事로 꾸며지는데 이것은 一見 虛構처럼 認識되기 쉬우나 典體的 物件을 바탕으로 그 物의 用途, 外形, 品質의 範圍를 벗어날 수 없다는 除限的 意味에서 完全한 虛構로 볼 수 없는 것이다.

例示하면 ‘楮生傳’에서 「其同母弟凡十九人 皆與之親睦 造次不失其序 性本精潔不喜武人 樂與文士遊 中山毛學士其友也」라고 했는데 楮生은 곧 종이를 意味하는 바 其同母弟가 凡十九人이라 함은 옛 종이 한 권은 二十張으로 되었기 때문에 생긴 말이므로 비록 이 作品이 設使 西洋사람에 의하여 짓게 되더라도 楮生의 兄弟로써 종이의 권을 表現하고자 한다면, 實際 人間의 兄弟數에 맞겠음 五六人으로 나타낼 수는 없는 것이다. ‘皆與之親睦 造次不失其序’에서도 종이의 規格이 一定하게 整頓된 順序에 따라 간추려져 있음을 뜻하는 것은 아무런 思想이나 觀點을 달리하는 作者라도 이 問題를 言及치 않을 수 있어도 言及하는 以上 親睦을 不知로, 不失其序를 失其序로 꾸며질 수는 없는 것이며, 性格清潔을 汚濁으로, 不喜武人을 善與武人으로, 樂與文士遊를 不喜文士遊로, ‘中山毛學士’는 붓을 이름이니 其契友로는 반드시 붓이나 먹 또는 머루 등으로 限定되는 것이며

12) 介는 甲옷을 뜻하는 바, 항상 갑옷을 입고 다닌다 함은 거북등의 背甲을 이르는 것이며 따라서 그 성질이 武를 崇尚한다고 하였다.

아무리 思想, 感情을 달리하는 作者라 할지라도 영똥한 事物을 契友로 꾸민다면 그것이 假傳이 될 수 없는 것이다. 그 가장 큰 實例로서는 林滌의 麴醇傳과 李奎報의 麴先生傳에서 볼 수 있다. 林滌의 술에 對한 見解와 李奎報의 술에 對한 생각은 正反對의 立場에 놓여 있다. 그러나, 作品에 引用된 故事나 引喻된 人間事들은 거의 相似하여 一見 模作임을 疑心하게 된다.¹³⁾ 考察하여 보면 前者가 술을 禁誡하는 內容의 作品이며 後者는 술을 讚美하는 뜻으로 쓰여진 作品임을 알 수 있다. 이 反對의 見解는 前者에 比해서 後者는 ‘先生’이란 尊稱을 붙인 點 또는 作者 李奎報는 自稱 三酷好라 하여 琴·詩·酒를 지극히 좋아 했다는 點만 고려한다면 쉽게 짐작이 가리라 믿거니와, 어떻던 假傳에 있어서 그 單片의 事件에 對해서는 故事나 傳說의 引用이거나, 또는 主人公이되는 個別의 事物의 特徵을 人間事에 比喩된 內容이던 間에 完全한 意味의 虛構는 못된다는 事實을 알게 된다.

本作品의 主題는 結末 論評部의 ‘聖人容或有差 可不慎乎’에서 明示되어 있거니와 이를 좀더 敷衍해 보면 아무리 智慧롭고 能力있는 사람이라도 때로는 뜻하지 못한 失手를 犯하게 되는 人間의 弱點을 諷刺하고 萬事に 慎重을 期할 것을 警戒한 것이다.

前示 26片의 單片的인 內容에 關聯된 約 37個의 故事 가운데서 그 主題面에서 內容을 같이하는 故事는 莊子 雜篇 外物 第二十六의 江使神龜와 史記 龜策傳의 두 件에 不過하며, 이 두 件이 합하여 本文 ‘18’에 關聯된 故事이고 보면 결국 主題의 內容이 되는 部分은 하나의 單片밖에 없다는 事實이 되겠는데 이는 數많은 異質의인 內容의 故事를 蒐集하여 換骨奪胎의인 새로운 作品을 編綴한 點에 있어서 그 編綴的 虛構性이 強調되는 것이다.

Ⅲ. 結 論

以上을 綜合하여 本稿를 매듭지워 보면 假傳은 그 事件의 虛構性에 있어서 小說과는 完全히 區別지을 수 있다. 곧 假傳의 事件構成은 첫째 많은 故事나 傳說을 引用하여 새로운 統一된 이야기를 編綴하였으며 둘째

13) 이 두 作品에 對하여 일찍이 研究가 加해진 바는 있으나 왜? 비슷한 作品이 쓰여졌는지에 대해서는 分明히 밝힌 研究는 現在까지 없으므로 筆者는 機會있는 대로 別論으로 研究發表 할 計劃임.

主人公이 되는 事物의 用途나 外形 및 性質資體의 特徵에 따라 範圍가 除限된 虛構로써 事件을 엮었다는 點인데 大概의 作品들은 이 兩面이 混合되어 있으나, 淸江使者 玄夫傳의 境遇는 주로 關聯된 故事로써 엮여져 있다. 假傳의 虛構性은 雜多한 單片的인 事件들을 統一된 主題를 向하여 巧妙하게 하나의 事件으로 엮어가는 編綴的인 面에서만 作用되어 왔는데 本傳의 境遇는 約 二十六片의 事件들을 約 四十 가까운 故事들로 엮어 놓았으며 各 故事, 傳說들은 主題의 內容面에서 거의 異質的 內容들을 하나의 統一된 主題에로 換骨奪胎되어 왔다. 그러므로 假傳의 이야기들은 이미 알려진 故事, 傳說 奇談에 依存되었으며 그 虛構性은 個別的인 事件들을 엮어나가는 編綴的 虛構라 하겠다.

東洋 옛 傳記의 第一種인 史傳을 굳이 그 學問的 屬性을 規定한다면¹⁴⁾ 歷史의 分野에 屬하는 것으로 어느 면에 있어서도 虛構라는 말은 붙일 수 없는 것임에 對하여, 小說은 그 單片的 事件이나, 插話에 있어서나, 全體的 프롯에 이르기까지 完全한 虛構로 되는 것이 그 主調¹⁵⁾라 한다면, 假傳은 史傳과 一般小說의 中間形態인 不完全한 虛構라 하겠다.

한편 우리 小說의 源流를 說話, 傳記, 및 稗說 等 多元的으로 求한다면 假傳의 不完定(半)한 虛構性은 傳記가 小說로 發展하는 過程인 中間 形態를 確定한 것이라 하겠다.

14) 古代 東洋 傳記는 그 學問的 分野가 未分化 狀態로 哲學과 文學의 集大成된 것이기에 一般的으로 어느 한 分野에 치우쳐 말하지 않기 때문임.

15) 主調란 같은 小說의 主된 面을 뜻한다. 왜냐하면 小說에 있어서도 歷史 小說等은 그 虛構性에서 一般 小說과는 달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主調란 말 代身에 原理란 말을 쓰면 이해하기, 쉽겠으나, 그러나 原則이라고 하면 例外가 있어야 하겠는데 小說에서 어느 것을 原則이다. 例外 다하기는 어렵기 때문임.